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자아탄력성, 대인불안과의 관계

서운경 (경희대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과 자아탄력성, 대인불안 세 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대학생의 바람직한 성역할정체감 형성 방향을 탐색하고 올바른 사회적 대인관계와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부권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444명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 척도(KSRI)와 자아탄력성 척도, 대인불안 척도(IAS)로 자료를 수집하여 SPSS 18.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여보면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에 차이가 있는가?라는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는 18-20세, 21-24세는 여성성 유형이 많이 분포되었으며, 25세 이상은 양성성 유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 대인불안은 차이가 있는가?라는 연구문제 2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상을 남녀 집단으로 나누어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자아탄력성에서는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대인불안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자아탄력성, 대인불안은 차이가 있는가? 라는 연구 문제3에 대한 결과를 보면 자아탄력성에서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탄력성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전통적인 성역할을 벗어나 양성적 성역할정체감을 발달시켜야 하며 양성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및 발달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키워드(Keywords): 성역할정체감, 자아탄력성, 대인불안, 대학생

I. 서론

오늘날 생활수준의 향상과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사회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변화되면서 개인에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특성도 변화되었다. 즉 전통적으로 남성은 남성다움과 여성은 여성다움이 기대되었다면 현대의 사회변화 속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모호해졌고(이운정, 2007), 남성적 여성적 행동에 대한 관점도 크게 달라졌다. 전통적 성역할 모델에서 한 개인은 남성성과 여성성 중 한 가지의 단일차원 만을 지니며, 개인은 자신이 가진 성역할정체감과 자신의 성이 일치할 때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주장되어 왔다(Kagan, 1964).

그러나 Bem(1974)은 전통적 모델에서 벗어나 남성성과 여성성이 단일차원이 아니라 분리된 독립적인 차원으로 간주하여 양성성(androgyny) 모델을 제시하였다. 양성성은 도구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성역할 특성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상황에 따른 적응력이 뛰어나게 된다(이은진, 2009).

kim(1992)은 양성성 성격체감을 갖는 사람들이 우울, 불안, 스트레스 수준이 낮으며, 자존심이 높고, 자신의 표현적 자기통제와 양보적 자기통제에 대해 모두 만족하며,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하고, 높은 자아발달 수준 및 창의력을 보인다고 하였다. 김신애, 정남운(2006)의 연구에서도 양성적인 사람이 자아존중감이 높고 대인관계 문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ego-resiliency) 역동적 성격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개념으로 내적·외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융통성 있는 풍부한 적응 능력을 뜻한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유능하고 융통성을 지니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이고, 특정 맥락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지각과 인지와 행동전략을 변화시킨다(Block, Block, 1980).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 등의 자아탄력성 하위 구성요소는 양성적 성역할정체감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불안, 스트레스에 역 상관을 보이고, 자기통제에 만족하며,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하고, 높은 자아발달 수준 및 창의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정순화, 이경희, 1997; 송은경, 1994; 박윤창, 윤진, 1988).

대인불안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거나 당황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사회적으로 억제되거나 수줍어하면서 서서히 발전하고, 학교적응을 저해하거나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안동현, 2009). 아직 정확한 통

계치가 없으나,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수치의 사람들이 대인불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정된다(김남재, 1995).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대인관계에서의 불안은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확장해 가야할 대학생들에게 심각한 고민이며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인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들에서 최임숙(2003)은 양성적 성역할정체감이 대인갈등관리 및 학교적응행동이 높다고 하였고, 김신애, 정남운(2006)는 양성성 유형을 가진 사람이 대인관계 문제가 낮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양성성을 가진 대학생들이 그들의 주된 활동 상황인 학교생활에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친밀하고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융통성 있는 사고가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성적으로 고정화된 성역할보다는 양성적 성역할이 심리적 적응이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 세 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대학생의 바람직한 성역할 정체감 형성의 방향을 탐색하고 올바른 사회적 대인관계와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2.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은 차이가 있는가?
3.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은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성역할정체감

1) 성역할정체감의 개념

성역할정체감은 심리적 성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한 개인을 특징짓는 성격특성과 행동특성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또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남성적 또는 여성적 성격특성을 소유하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Bem, 1975). 전통적으로 성역할정체감은 ‘남성적’, ‘여성적’의 두 개념으로 이분되어 있었다. 남성

성은 도구적, 주장적, 독립적, 합리적, 성취적, 적극적, 주도적, 경쟁적, 비감정적인 특성과 같이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과 관련된 특성을 의미하며, 여성성은 따뜻하고, 정서표현적, 수동적, 관계지향적, 감정적, 협동적, 직관적, 양육적, 민감하고 의존적인 특성과 같이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과 관련된 특성들을 의미한다 (김혜숙, 1992; Broverman et al. 1979, 유계식, 이재창, 1997 재인용).

Bem(1983)은 남성성, 여성성은 독립차원으로 한 개인 내에 남성성, 여성성이 함께 공존하면서 한쪽 성만을 갖는 개인도 존재할 수도 있고, 이 둘 모두를 갖는 양성성을 가진 개인도 있다고 주장한 양성성 이론을 제안하였다. 양성성 성역할정체감을 가진 개인은 남성 변인인 점수와 여성 변인인 점수간의 차이가 거의 없이 모두 높은 유형이다. 이들은 능력 있고, 성취 지향적이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적응을 잘하는 특성을 지닌다. 양성성에서 성역할 정체감의 목표는 엄격한 성 유형화된 정체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 상관없이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간의 균형을 이루는 양성성 성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2) 성역할정체감의 발달

개인의 성역할정체감 발달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나 문화적 풍토에 적합한 성역할 특성을 발달 시켜나가는 과정인 성유형화 과정이 나타나는데 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여한다(김미경, 2001). 성유형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입장은 생물 사회학적 이론, 정신분석 이론, 사회학습 이론, 인지발달 이론 등이 있다.

생물 사회학적 이론은 성역할 발달을 유전인자나 성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입장이다. 즉 성별에 의한 해부학적 신체구조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듯이 성격, 태도, 행동 등 모든 남녀 66간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에도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김미경, 2001). Freud는 정신분석 이론에서 남자와 여자의 근원적인 차이는 그의 심리성적 발달 5단계 중에서 3단계인 남근기에 서로 다른 경험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동료집단, 형제 관계, 사회적 압력 등 성역할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 이외의 다른 사회적 요인들을 무시하였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아 성장을 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학습이론가인 Bandura(1977)는 성형화 과정을 강화(reinforcement)와 모델링(modeling)의 원리로 설명한다. 즉 성역할정체감은 부모, 교사, 또는 친구가

아동의 성에 적합한 행동을 강화하고 성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은 벌을 줌으로써 남아는 단호하고 경쟁적이고, 여아는 얌전하고 협동적인 성역할정체감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때 개인은 특히 동성 부모를 모방함으로써 남아는 남성다워지고 여아는 여성다워지는 성고정화된 행동을 획득하면서 성역할 정체감을 발전시키게 된다고 본다.

인지발달이론가인 Kolberg와 Zigler(1967)에 따르면 아동은 양성(both sexes) 중의 하나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성별 정체감을 획득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확고히 성불변성(the constancy of gender)을 받아들이며 5~6세쯤 여성 또는 남성의 역할에 맞는 행동과 사물을 구분한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 성역할 발달은 단순히 부모와 동일시하거나,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적 성취의 결과인 인지발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위의 이론들에 따르면 성역할사회화과정은 남성은 남성적 특성을 여성은 여성적 특성을 획득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성공적인 발달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Bem, 1974).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한 도전이 성역할 정체감의 양성성정체감을 개념화하는데 기여하였다.

2. 자아탄력성

1) 자아탄력성의 개념

최근 스트레스나 역경 혹은 위협적 환경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 및 정서 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해 가는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아탄력성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자아탄력성이란 외적 또는 내적 스트레스에 저항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을 의미한다(Klöhnen, 1996).

Block은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상황에서 융통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충동통제를 잘 조절하는 행동 특성을 보임으로써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적응을 하는데 유연성이 부족하므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환경적 요구에 응하지 못하여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에 곤란을 겪게 된다(최경자, 2007).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의 성격 및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불안이나 우울에 취약하지 않으며, 주어진 환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긍정적

정서를 보이고 어떤 상황이 스트레스로 지각되더라도 이로 인해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하는 경향이 낮다.

자아탄력성을 구성하는 성격특성에 대한 국외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은 낙천성, 자율성, 능동적인 활동성, 타인에 대한 공감, 원만한 대인관계 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연구(윤현희, 1998)에 의하면 KPI-C(Korean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의 자아탄력성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또래관계 및 자신감, 자기수용 및 낙천성, 가족관계의 세 요인이 산출되었다. 이러한 특성들 중 자율성과 능동적인 활동성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능숙한 표현 기술요인은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자아탄력성의 특성

Block과 Block(1980)은 중단적인 실험연구를 통해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 있고, 통합된 수행을 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 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성격이 안정적이어서 덜 불안해하며, 자신감이 있고, 학교와 사회의 능동적인 참여와 융통성이 있는 적응을 보이며, 또래 관계에서 적절한 정서표현을 하고 공감적이며, 유능하고 유창하며 영리한 특성을 가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자아탄력성에 관한 국내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구형모, 황순택, 2001)에서는 자아탄력집단의 성격특질은 외향적이고, 친화적이고, 성실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청소년의 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구자은(2000)의 연구에서는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잘 적응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연(2007)은 자아탄력적인 대학생일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덜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친밀하고 효과적인 대인관계는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인격발달을 도우며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자아탄력성은 사회성, 대인관계, 생활적응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긍정적 신념을 유지하는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인불안

1) 대인불안의 개념

대인불안은 사회적-평가적 상황에서의 걱정, 자기의식(self-consciousness), 정서적 고통 등을 포함한다(Leitenberg, 1990). 그리고 그 사회적 상황에서 보이는 망설임이고 회피하는 행동과 생리적 반응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인불안의 조건으로 높은 생리적 각성(arousal) 수준, 타인이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기대, 그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위협적 대인 상황에 대한 회피 행동을 들 수 있다(Beidel, Turner, Dancu, 1984).

DSM-IV에서는 대인불안이란 “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켜 볼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사회적 또는 수행적 상황에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보이며, 그런 상황에서 창피하고 당황스럽게 행동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즉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가지면서 자신이 과연 그렇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지 의심할 때 대인불안을 경험한다(이재원, 2006).

김창은(1991)은 대인불안의 특징을 조사하여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대인불안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한다. 둘째, 불안이나 신경증 같은 강한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 받는 것에 대한 지나친 염려 등의 인지적 특징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일상적인 사회적 반응의 붕괴와 같은 행동적 징후를 나타낸다.

2) 대인불안의 원인과 특징

대인불안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소아기에, 이들에게 창피를 주고, 비판하고, 놀리고, 모욕하고, 이들을 버림으로써 당황하게 만든 부모와 돌보는 사람, 그리고 형제 등의 내재화된 표상을 지니고 있다(Gabbard 1992). 이러한 표상은 주변에서 이들이 회피하였던 사람에게 반복 투사된다. 이러한 영향들은 양육자가 소아의 두려움에 민감하고 이를 보상하려고 한다면 함입물보다 순하고 덜 위협적이며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증상이 둔화될 수 있다고 본다.

대인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통적 특징을 이시형(1990)은 다음과 같은 6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내향적으로 자신에 대한 주위나 관심이 높고 대인불안이나 걱정이 해소되기 전까지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 문제에 집착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매달린다.

둘째, 심신과 민형으로 작은 신체적 결함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며 따라서 정상적인 신체 상태를 왜곡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완벽증으로 양자택일의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중간쯤의 절충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기억제·타인배려 의식경향이 지나치게 극단적일 때는 순한 양처럼 약기(弱氣)로 있다가, 반대로 남에게 지기 싫어하며 우월의식이 발동되는 강기(強氣)로 되는 경우 등이 있다.

넷째, 높은 이상주의로 사소한 일에도 쉽게 자존심이 몹시 상하고 또는 이를 못 견디어 불안해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쉽사리 열등감·좌절감에 빠져드는 까닭은 이들이 지나치게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진지한 노력형으로 심한 열등감·좌절감 속에 고민하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강한 집념이 있다.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모두 자기 탓으로 돌리는 강한 자책감으로 인해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 자존심이 상해도 공격적이기보다는 노력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성격적 특징이 있다.

여섯째, 강한 상향 의식으로 대인관계가 힘들고 사회생활이 힘들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공에의 굳은 집념과 보다 나은 자기 발전에의 강한 욕구가 있다.

4. 성역할정체감과 자아탄력성

최근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연구는 과거의 전형적인 성역할이 적용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반박하는 증거가 나오면서 양성적인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전술하였다. 양성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에 관계없이 여성적인 특성과 남성적인 특성을 공유하며, 이 특성 모두가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유능한 특성이 나타난다.

김득란(1992)의 양성성에 관한 연구에서 양성성은 여러 상황에서 성 고정관념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며, 사회적 관계에서 더 유능하고, 융통성 있고, 더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희(1992)의 연구에서는 양성성을 가진 사람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수준과 역 상관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보다 자존심이 높고, 자기통제능력이 높으며,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하고, 높은 자아발달 수준 및 창의력을 보인다고 하였다. 김미경(2001)도 성역할 유형에서 양성성이 여

성성과 미분화 유형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나 양성적인 사람이 현대 사회에 잘 적응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양성적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사회적 능력이 뛰어나며, 높은 자아발달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양성성의 특성은 Block과 Block(1980)이 밝힌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의 특성인 융통성 있고 통합된 수행, 성격 안정성, 자신감, 학교와 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와 융통성 있는 적응, 또래관계의 적절성, 인지능력 등의 특성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성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은 자아탄력성이 높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5. 성역할정체감과 대인불안

전형적인 성역할이 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종래의 생각들을 반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남성성과 여성성 정체감 집단이 무기력 증상에 민감하고 양성성 정체감 집단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무기력 증상을 극복하였으며(Baucum, Danker-Brown, 1979) 오히려 비전형적 성역할의 획득이 적응에 도움을 주며 정서적인 만족감을 갖게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Bailey, Bechtold & Berenbaum, 2002).

이러한 사실들과 관련하여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류은정 외(2006)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불안,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자살사고와 우울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불안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박현주(2007)는 심리적인 양성성이 대인관계 유연성이 높아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고, 김신애, 정남운(2006)은 양성성 유형이 자아존중감은 높은 반면 대인관계문제 는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강부송(1985)과 강영숙(1999)은 성정체감과 대인관계연구에서 양성성이 대인관계에 있어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미분화성이 높은 수준의 점수를 얻었다는 연구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대인불안이 서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심리적으로 양성적인 사람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 조직에 필요한 대인관계가 유연한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급속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함께 일하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대인관계에 유연한 사람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리적으로 양

성적인 사람이 대인관계가 유연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6.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

Tellegen(1985)은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불안에 취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동참하고 확실히 긍정적 정서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아경직적인 사람은 필연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개인을 불안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아경직적인 사람들은 이미 결정된 반응패턴을 사용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과다통제하거나 과소통제 하여 환경적인 맥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어렵고, 부정적인 정서가 증가하며, 자주 예기불안을 느낀다고 하였다.

스트레스와 충돌할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직면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효과적인 정서 조절 기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특히 자아통제력의 조절은 자아탄력성의 핵심적인 구성 개념으로, 정서적이고 동기적인 충동들을 내적으로 갖고 있거나 이를 표현하려는 경향으로 정의된다. 개인은 효과적인 적응에 요구되는 것보다 과소통제하거나 과다통제 할 때 문제 장면에 대하여 탄력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Block, Kremen, 1996).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정서적 충동이나 억제를 역동적으로 조절하는 통제감을 갖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아탄력성이 정서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정서에 대한 조절과 활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위협 요소를 극복하게 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특히 대인관계 맥락에서 적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며, 대인불안과 같은 부적응적인 문제 장면에서도 자신의 정서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그러므로 자아탄력성은 대인불안과 같은 부적응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며, 나아가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켜 심리적 위협요소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가정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부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4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6부를 제외한 44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자가 181명(40.8%), 여자가 263명(59.2%), 나이는 19세~28세까지였으며, 평균 연령은 만 22.32세(SD=1.79)였다. 학년은 1학년 61명(13.7%), 2학년 112명(25.2%), 3학년 153명(34.5%), 4학년 118명(26.6%)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181	40.8	
	여	263	59.2	
나이	19세	8	1.8	22.32(1.79)
	20세	65	14.6	
	21세	92	20.7	
	22세	86	19.4	
	23세	85	19.1	
	24세	51	11.5	
	25세	39	8.8	
	26세 이상	18	4.1	
학년	1학년	61	13.7	
	2학년	112	25.2	
	3학년	153	34.5	
	4학년	118	26.6	
	계	444	100	

2. 측정도구

1) 성역할정체감(Korean Sex Role Inventory : KSRI)

성역할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보고되어 있고, 후속연구(김남숙,1997)를 통하여 조절계수와 분류 기준점이 제시되어 비교적 합리적인 정진경(1990)의 한국형 성역할 검사(KSRI)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에서 측정한 문항들은 남성성 20개 문항, 여성성 20개 문항, 긍정성 20개 문항 등 총 6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자신의 특성과 일치하는 정도로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 '아주 그렇다'의 7점 척도이며, 각 점수는 20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다. 남성성 문항은 여성에게 보다는 남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긍정적 특성을 측정한다. 여성성 문항은 남성에게 보다는 여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긍정적 특성을 측정한다. 긍정성 문항은 자신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중성적 문항으로, 10개의 부정적 특성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를 반대로 전환하여 긍정적 특성문항과 합하여 20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긍정적인 특성을 높게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긍정적 반응 경향성에서 남녀별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긍정성 문항과 남성성 문항간의 상관($r=.332, p<.01$), 긍정성 문항과 여성성 문항간의 상관($r=.452, p<.01$)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료 분석에서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구체적인 집단 분류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성 20개 문항과 여성성 20개 문항, 긍정성 문항 20개 각각의 평균을 산출한 다음 분류 기준점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였다. 남성성 점수의 기준점은 4.47이고 여성성 점수의 기준점은 4.29이다(김남숙, 1997). 기준치 점수 분리법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분류는 [그림 1]과 같다. 이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검사의 하위척도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2>과 같다.

<표 2> 성역할정체감 척도의 문항구성

하위 척도	문항 수	문항 번호	Cronbach α
남성성	20	1,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4, 37, 40, 43, 46, 49, 52, 55, 58	.893
여성성	20	2, 5,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38, 41, 44, 47, 50, 53, 56, 59	.845

긍정성	20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39, 42*, 45, 48*, 51, 54*, 57, 60*	.753
계	60		

(*은 역채점문항)

		여성성 점수	
		기준치 이상	기준치 미만
남성성 점수	기준치 이상	양성성	남성성
	기준치 미만	여성성	미분화

[그림 1] 기준치 점수 분리법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분류

2) 자아탄력성 척도

자아탄력성은 Block(1961, 1978)에 의해 개념화되고 고안된 척도로써, 관찰자에 의해 100개의 목록을 사용한 Q-sort(CAQ)를 통해 평정되었으나, 실제로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고 다수의 평정자를 요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Klohenn(1996)이 CPI(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에서 CAQ의 자아탄력성 문항과 .20이상의 상관을 보이는 48개의 문항을 뽑아 CPI의 다른 하위 척도와 상관이 있는 문항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9개의 항목으로 추려 자가보고식 자아탄력성 척도를 개발, 타당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박현진(1997)이 번역하고 고민숙(2002)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9문항으로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로 긍정적 진술 4문항과 부정적 진술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08$ 로 나타났다. 문항구성은 <표 3>와 같다.

<표 3> 자아탄력성 척도의 문항구성

하위척도	문항 수	문항 번호	Cronbach α
자아	2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908

탄력성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계	29

(*은 역채점문항)

3) 대인불안 척도(Interaction Anxiousness Scale : IAS)

대인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Leary(1983)의 대인관계 불안 척도를 김남재(1995)가 번안한 한국판 IA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그 문장이 자신의 특성을 얼마나 잘 기술하는가 하는 정도를 Likert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매우 그렇다)상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5문항 중 3, 6, 10, 15번 문항은 역채점을 실시하고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5-75점이다. 본 연구의 대인불안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79$ 이었다.

<표 4> 대인불안척도의 문항구성

하위척도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 α
대인불안	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779
계	15		

(*은 역채점 문항)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 및 처리는 Windows용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각 변수들을 측정한 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를 이용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 3)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성역할정체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 4)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 실시하였다.
- 5)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비교는 sheffé 검증을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의 차이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알아보고, 성역할 정체감 집단별로 인구통계학적 성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row(%)

성역할정체감 인구통계학적변인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전체
		남	67(37.0)	10(5.5)	58(32.0)	46(25.4)
성별	여	91(34.6)	14(5.3)	100(38.0)	58(22.1)	263(100)
			$\chi^2=1.778$ $p=.620$			
학년	1학년	22(36.1)	4(6.6)	22(36.1)	13(21.3)	61(100)
	2학년	38(33.9)	6(5.4)	42(37.5)	26(23.2)	112(100)
	3학년	47(30.7)	6(3.9)	53(34.6)	47(30.7)	153(100)
	4학년	51(43.2)	8(6.8)	41(34.7)	18(15.3)	118(100)

	$\chi^2=11.365$ $p=.252$					
연령	18-20세	24(32.9)	5(6.8)	26(35.6)	18(24.7)	73(100)
	21-24세	101(32.2)	16(5.1)	117(37.3)	80(25.5)	314(100)
	25세이상	33(57.9)	3(5.3)	15(26.3)	6(10.5)	57(100)
	$\chi^2=15.779^*$ $p=.015$					
전체	158(35.6)	24(5.4)	158(35.6)	104(23.4)	444(100)	

* $p<.05$

성별, 학년과 성역할정체감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연령과 성역할정체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p<.05$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chi^2=15.779$). 18-20세, 21-24세는 여성성 유형이 많이 분포되었으며 25세 이상은 양성성 유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연령이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성성의 특성이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2.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 비교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6>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t-검정

	평균	표준편차	t
남	3.44	.62	.004
여	3.44	.50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녀 대학생 자아탄력성 평균이 3.44로 같았다.

2) 성별에 따른 대인불안의 차이비교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대인불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7> 성별에 따른 대인불안의 t-검정

	평균	표준편차	t
남	2.85	.58	-.829
여	2.89	.46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대인불안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의 대인불안 평균은 2.85였고, 여학생은 2.89로 남녀간 평균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3.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비교

1)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비교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모수요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역할정체감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 검증으로 s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 평균 F검증 결과

성역할정체감 유형	N	M	SD	F	p	sheffé
--------------	---	---	----	---	---	--------

양성성(1)	158	3.61	.57			
남성성(2)	24	3.58	.53			
여성성(3)	158	3.36	.48	9.608	.000	1>2,3,4
미분화(4)	104	3.29	.55			
전체	444	3.44	.55			

<표 8>에 의하면, 자아탄력성 총 점수 평균은 양성성이 3.61, 남성성이 3.58, 여성성이 3.36, 미분화가 3.29로 성역할정체감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9.608, p<.05). sheffé 방식을 사용한 사후 검증 결과 양성성은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유형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으며, 남성성과 여성성은 미분화 유형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대인불안의 차이비교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대인불안의 차이 알아보기 위해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모수요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대인불안 평균 F검증 결과

성역할정체감 유형	N	M	SD	F	p	sheffé
양성성(1)	158	2.67	.53			
남성성(2)	24	2.72	.51			
여성성(3)	158	3.05	.42	18.487	.000	1>2,3,4
미분화(4)	104	2.98	.51			
전체	444	2.88	.51			

<표 9>에 의하면, 대인불안 평균은 양성성이 2.67, 남성성이 2.72, 여성성이 3.05, 미분화가 2.98로 성역할정체감 유형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8.487, p<.05). sheffé 방식을 이용한 사후 검증 결과 양성성은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유형보다 대인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과 자아탄력성, 대인불안 세 요인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대학생의 바람직한 성역할 정체감 형성의 방향을 탐색하고 올바른 사회적 대인관계와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의 차이는 t-검정,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 간의 차이는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선행연구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에 차이가 있는가? 라는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는 18-20세, 21-24세는 여성성 유형이 많이 분포되었으며, 25세 이상은 양성성 유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연령이 20대 후반 일수록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적응이란 관점에서 우세하며, 바람직한 양성성의 특성이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성역할정체감의 확립은 앞으로 개인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초월한 개인의 개성과 장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꼭 확립해 주어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둘째,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 대인불안은 차이가 있는가? 라는 연구문제 2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상을 남녀 집단으로 나누어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자아탄력성에서는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는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박은희(1996)와 안선형(2004)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지만,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Dixon(2002), 차은주(2010)의 연구도 있어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대인불안에서 역시 남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대인관계에서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에 비해서 대인불안감이 높다는 김나영(2009)과 유초상(2011)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와 달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연구대상 집단 구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은 차이가 있는가? 라는 연구문제 3에 대한 결과로 먼저 자아탄력성에서는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양성성 유형은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유형에 비하여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아 다른 세 유형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성성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사회적 관계에서 더 유능하고 융통성이 있다는 김득란(1992)의 연구, 양성성 유형이 의사결정시 가장 합리적이고 직관적인 능력이 우수하다는 송은경(1994)의 연구, 양성성 유형이 활동성, 안정성, 협조성 등과 같은 사회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김미경(2001)의 연구 외의 다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대인불안의 차이에 대한 결과 역시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양성성 유형이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유형에 비하여 대인불안 점수가 낮아 다른 세 유형에 비해 대인불안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성성 유형이 대인 갈등관리 및 학교적응 행동이 높다는 최임숙(2003)의 연구, 양성성 유형이 자아존중감이 높고, 성역할 갈등이 낮고, 대인관계문제가 낮다는 김신애와 정남운(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남녀간의 생물학적 성차에 따라 자아탄력성 및 대인불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남녀 상호간 유사한 양성적인 성역할정체감을 기대하게 된 경향성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성역할정체감에서 양성성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양성적인 사람은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상황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며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즉, 남성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남을 지배하려고 애쓰기 보다는 돌보아 줄 수 있고, 여성의 경우 나약하기 않고 자기주장이 뚜렷하며 사회에서 성실히 성취를 이루어 나가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Gilligan, 1982; Spence, Helmreich & Stapp, 1974, 1975)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Bem(1974)를 비롯한 양성성 이론가들은 성정형화된 사람들은 양성의 역할 중 한 가지에 일치되는 행동을 수행하는 데는 편안함을 느끼지만 나머지 다른 쪽의 성역할에 맞는 행동을 수행하는 데에는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일 때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그러나 양성적인 사람은 당면한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도구적 행위와 표현적 행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Frank(1979), Foxley(1979), Kenworthy(1979) 등이 양성성의 개념을 상담에 적용한 결과, 양성성이 내담자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을 돕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이것은 융통성 있는 양성적 성역할 태도가 다양한 사

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전통적인 성역할을 벗어나 양성적 성역할정체감을 발달시켜야 함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소유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가 개방적이고 유연한 양성적 성역할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인적인 성장을 위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과 교육을 통해 고정된 성역할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이나, 양성성 증진을 위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의식향상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양성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과의 균형을 이루고, 고정 관념화된 성역할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충남 중부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학생들 4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하고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성역할정체감, 자아탄력성, 대인불안을 알아보는 척도들은 모두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응답할 당시 응답자들의 개인적, 상황적인 요인들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점을 감안해서 질문지 방법외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의 유형이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지만, 자아탄력성과 대인불안의 하위요인에 대해서는 구별하지 않아 자아탄력성이나 대인불안에 하위요인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하위요인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자아탄력성, 대인불안 간의 직접적인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세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다양한 매개변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부송(1985). **성역할 정체감과 대인관계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강영숙(1999). **제주도 초등학생의 성, 정체감, 자기노출 및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 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구형모·황순택 (2001). CCQ 자아탄력척도와 자아통제척도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345-358.
- 김나영(200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중재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남숙·정진경·박광배(1997). 한국 성역할 검사의 수정점수 및 분류기준 산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77-90.
- 김남재(1995). 대인불안의 측정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78-81.
- 김득란(1992). 양성적 남녀의 성역할 유형에 따른 생활적응, **중등교육연구**. 7, 168-192.
- 김미경(2001). **형제 유무와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신애·정남운 (2006). 남성의 성역할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 500-501.
- 김주연(2007).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김혜숙(1992). 성별 고정관념, 성차이와 양성성. 현대사회의 여성과 남성.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편**. 440-92.
- 류은정·서정석·함미영·박영례·문석우·남범우(2006). 청소년의 성역할정체감과 불안, 우울, 자살사고. **정신간호학회지**. 15(2), 136-143.
- 박윤창·윤진(1988). 성역할태도와 공격적 여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심리학회연구**. 4(1), 213-240.
- 박은희(1996). **자아탄력성,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박현주(2007). **심리적 양성성이 대인관계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문장적합성 과제에서 반응시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박현진(1996).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송은경(1994). **고등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진로 의사결정 유형간의 관련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동현(2009). 청소년 정신건강장애. **대한의사협회지**. 52(8), 745-755.
- 안선형(2004). **아동의 통제소재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계식·이재창(1997). 대학생의 성공공포와 성취동기 및 성역할정체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259-288.
- 유초상(2011). **대학생의 신체상과 자기효능감 및 대인불안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대학원.
- 윤현희(1998). **부모보고형의 자아탄력성 척도의 개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이경희(1992).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상희·이은진(2009).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태도가 진로자기효능감,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4), 2137-2151.
- 이윤정(2007).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의 동기에 관한 연구; 성역할정체감과 의복추구행태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1(4), 551-562.
- 이재원(2006).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자아정체감과 대인불안의 관계 :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정진경(1990). 한국 성역할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5(1), 82-92.
- 차은주(2010).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실패내성,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임숙(2003). **성역할정체감과 대인갈등관리 및 학교적응 행동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Bailey, J. k., Bechtold, K. T., Berenbaum, S. A. (2002). Who are tomboys and why should we study them?. *Arch Sex Behavior*, 31(4), 333-341.
- Baucom, D.H., Danker-Brown, P. (1979). Influence of sex role on the development of learned helplessness. *Journal Consult Clin Psychology*, 47, 928-936.
- Beiel, D. C., turner, S. M, & Dancu, C. V. (1984). Psychological, cognitive and behavioral aspects of social anxiety.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23, 109-117.
- Bem S. L. (1983). Beyond androgyny : Some presumptuous prescriptions for a liberated sexual identity. In J. A. Sherman & F. L . Denmark(Eds) *The psychology of woman : Future direction in research* New york: Psychological Dimensions.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62.
- Bem, S. L. (1975)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634-643.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Dixon, S. J. (2002). Attitudes that reflect resilience and their relationship to coping responses and protective factors in Afr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Gabbard G. (1992). Psychodynamics of panic disorder and social phobia. *Bull Menninger Clin.* 56(2).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agan, j. (1964). Acquisition and significance of sex-typing and sex-role identity. O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KIM D. R. (1992). a study on the sex typed responses styles and related variables in androgynous males and fema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Klohe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67-1079.
- Leitenberg H. (Ed.) (1990).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on anxiety*. New york : Plenum.

Abstract

The Relationship among the Type of Gender-Role Identity, Ego-Resiliency and Interpersonal Anxiety by University Students

Yun-Gyeong Seo (Kyung He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by examining a relationship among the type of Gender-role identity, Ego-Resiliency and Interpersonal Anxiety in order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development of a program helping psychological adaption. For this, the study has performed one-wa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o its purpose by using a program SPSS 18.0 for Windows, collecting materials of Korean Sex role Inventory(KSRI), Ego-Resiliency Scale and interaction anxiousness scale(IAS) with target of 444 college students attending a four-year college located in the Chungnam-region.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dividing each group according to gender-role identity of each study object, it is found that the percentage of androgyny type was the highest as 33 persons (46.5%) over 25 years old, followed by femininity, undifferentiated personality, masculinity types. Furthermore, the difference of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ender-role identity group had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age item. Second,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ego-resiliency and interpersonal anxiety according to gender. Third,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ego-resiliency and interpersonal anxiety according to the type of gender-role identity. The students who belongs to the androgyny type group have significantly higher ego-resiliency scores than those of the students who belongs to the masculinity, femininity and undifferentiated personality types.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interpersonal anxiety according to the type of gender-role identity.

Likewise, the students who belong to the androgyny type group have significantly lower interpersonal anxiety scores than those of the students who belongs to the masculinity, femininity and undifferentiated personality types. In conclusion, androgyny type have higher ego-resiliency, and lower interpersonal anxiety than other type. Therefor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may be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which can improve gender-equal attitude and behavior. gender-role identity self-consciousness training program proved to be effective could help a student to grow as an androgynous person that adaptable to radically changing social demands.

Key Words: Sex-Role Identity, Ego-Resiliency, Interpersonal Anxiety

영역	설문문항	IPA					요구도 순위				
		초	중	고	교원전체	지역주민	초	중	고	교원전체	지역주민
마을교육공동체	주민들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2)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이 돌봄과 교육 자원으로 기능한다	저순위	저순위	저순위	저순위	유지	2	1	5	2	7
	3) 학교와 마을이 좋은 교육을 위해 협력한다	저순위	저순위	저순위	저순위	집중	4	4	4	3	2